

## 科學技術人的 社會的 地位

尊敬하는 來賓 여러분!

그리고 全國의 8萬餘 科學技術人 會員 여러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創立 12周年을 맞이하는 오늘, 이 나라 科學界의 大元老되시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인사, 학자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科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학기술계의 무한한 發展과 알찬 內實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이와 같이 簡素한 紀念行事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를 같이 해주신, 12년 동안 會長職을 맡아오신 金允基 명예회장을 비롯해서 朱耀翰 선생님, 金東一박사님 등 여러 선배들이 남긴 값진 유산이라고 하는 崇高한 생각하에서 혹은 구절하다시피 때로는 인격과도 관련된 좋지 않은, 불유쾌한 장면까지도 극복해 가면서 이 會館을 마련했고 또 科總을 設立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선배님들의 고마운 뜻에 머리숙여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科總은 우리 科學技術人들의 權益을 擁護하면서 資質을 向上하는 한편, 새마을 技術奉仕活動을 비롯한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을 展開해서 우리 스스로가 科學立國의 礎石이 되고자 努力하여 왔습니다.

이제 科總은 傘下 各 分野에 143學會·團體와 全國에 約 8萬餘會員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海外 國際 科學技術 機構에도 加入하므로써 새로운 科學技術의 發展과 그를 위한 情報를 交換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본인이 會長職에 就任한 후 各 學會團體 代表로 構成된 評議會를 갖고 새로운 發展策을 模索하는 한편 當面한 懸案 問題點과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을 爲한 政策을 關係要路에 建議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美洲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우리 科學技術者와 同伴家族들은 招請하여 「第5次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를 科總으로서 처음으로 直接 主管함으로써 科總의 存在價値를 다시한번 內外에 誇示하고 동시에 科總 事務局도 새로운 進영을 갖추어서 모든 能力을 科總 發展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의 科學技術을 發展시키는데 一臂之力을 담당할 수 있는 스태프를 뽑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全國새마을 技術指導事例發表會」를 처음으로 地方에서 盛大하게 開催하였으며 科學技術用語集(醫學編)도 發刊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많은 解決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就任式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科學技術을 振興시켜 高度의 頭腦를 開發하여 새로운 角度에서 이 나라 產業發展에 科學技術이 密着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科

## 向上에 努力



學技術者, 특히 技術者들이 一線에서 피나는 수고를 하는데 대한 댓가—물론 그들이 무슨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등에 대한 문제를 科總이 앞으로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解決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科學技術人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오늘 科總 創立 12周年을 紀念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科總이 건물은 갖고 있었으나 예산이 풍족치 못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 혹은 선배들이 구상하신 일을 實踐에 옮기지 못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政府 各界 各層의 여러 도움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일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는 展望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서 다같이 힘을 합치고 衆知를 모아서 科學技術界의 앞날과 科總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協力과 指導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科總이 탄생하기까지의 경위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科學技術處 역시 막중한 임무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연유해서 우리 과학기술인의 社會的 地位마저도 같은 성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우리 科總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科學技術處에 대해서도 전체 8萬, 科學技術人이 한테 뭉쳐 科技處가 하고자 하는 일에 뒷받침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취코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정도로 紀念辭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科總이 發展할 수 있도록 微力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科總이 創立될 때까지 혹은 創立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고를 해주신 元老 科學技術人 선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이를 育成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科技處 당국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紀念辭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 9월 25일

會 長 閔 寬 植